

특별기고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600만불 사나이’. 1970년대 미국 지상파 ABC에서 방영된 공상 과학(SF) 액션 드라마가 있다. 요즘 미국 드라마의 효시다. 이 드라마는 거의 같은 시기 한국의 동양방송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10년 뒤 1980년대 후반 KBS에서 재방송했다. 파일럿이었고, 우주비행사였던 이 남자는 비행기 사고로 한쪽 눈과 한쪽 팔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다. 모두 이 남자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생체공학 기술이 결합한 사이보그로 다시 태어났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요즘 사이보그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에 인공지능(AI) 로봇이 실제 등장해 버렸다. 전쟁에서는 드론이 새로운 강자다. 인류 문명사에 새로운 전환기다. 전쟁뿐만 아니라, 작업, 과제물, 하물며 기사노동까지 AI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궁극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챗GPT(ChatGPT)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버린다. 통역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해져 버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챗GPT를 알지 못했다. 수만 가지 경우 수를 따져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알고리즘 장치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해법을 찾아버리는 AI를 물리적으로 이길 사람은 없다. 9년 전 바둑기사 이세돌과 AI가 격돌했을 때, 사람들은 AI가 뭘지도 몰랐다. 그동안 우

AI 활용한 업무 아파트 자동화 관리

리가 알고 있었던 기계는 아닌 정도의 성능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다. 공장의 작업 생산라인, 자율주행 차량, 농산물 재배와 수확, 사람의 생체리듬, 건강 관리, 주거환경 속에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다. 질병도 AI가 정확히 찾아내 수술할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이 눈 깜짝할 시간애 AI시대로 접어들었다.

기대 수명은 늘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더 깊숙이 AI에 의존할 것 같다. 목직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해서 그 변화가 더딜 것 같지 않다. 2024년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가 의미 심장하다. 하루 집 밖 생활이 10.3시간이고, 이중 4분의 1이 이동 시간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생활한다. AI는 사람들이 머문 곳을 향해 있다.

위라벨 시대, 정보통신기술이 나온 AI는 멈추지 않고 상상 이상으로 진화할 것이다. 최근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상영됐다. 주인공은 어느날 갑자기 실직자가 됐다. 블랙코미디 같지만 사실 무서운 영화다. 그는 경쟁자를 살벌하게 제거하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은 섬뜩하다. 공장은 온통 기계들이 일할 뿐이다. 사람 한 명이 그 많은 기계를 관리한다.

아파트 관리 현장도 급변했다. 육중한 콘크리트가 버려 주리라 생각하면 낭패다. 설계부터 짓는 때까지 기존과 같은 공법일 수가 없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도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화해왔다. 이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관리자는 원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변해지

고 싶다. 그럼 더 빠르고 편의적인 소비자 요구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관리시스템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아파트 관리자는 정년이 느슨해졌다. 이미 80세 종사자가 등장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제2의 직장으로 주택관리사를 선택하고 있다. 그만큼 매력적인 직종으로 인식이 높아졌다. 건강만 하면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8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안전하면 관리 종사자들은 8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서비스 직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8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다. 급변하는 관리 현장에 제대로 적응해야 한다. 수시로 변하는 각종 법령의 인지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챗GPT나 AI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도 습득해야 한다.

옛그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서비스가 마비됐다. 또 한국의 골지 통신업체 보안이 연달아 해커들에 의해 뚫렸다. 우리는 아직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 대부분이 사는 아파트의 시설은 갈수록 정보통신화될 것이 뻔하다. 소방, 전기, 기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얹히고 설켜 있다. 이제는 정보통신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설이 여기에 더해지고 있다. 관리자의 어깨가 무겁다.

그들의 비중이 가볍지 않다. 관리자의 전문가적인 의식의 전환과 함께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대정신도 비례해서 높아져야 한다. 아파트 관리는 AI 정보통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관리를 갖추으로써 차세대 관리시스템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

기고

신민호

전남도의원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고 하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하는 행태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1905년 11월 일본 강요에 의한 을사늑약 체결이 압박하자,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조규’에 있는 “거충조정” 즉 상호 돕는다는 내용에 따라 대한제국은,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이익을 승인한 후였다. 우리는 모르고 찾았던 것이다.

한, 미 관계를 살피기 때 자주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떠올리곤 하는 것은, 우리의 순진함, 제국주의 국가의 무서움을 경계하고자 함 때문이다. 정치가 직업인 필자는, 고대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정치가의 자질로 “식견”, “설명하는 능력”, “조국”에 대한 사랑, “돈에 초연”할 것을 강조하는 것에 울림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지향점이 제국주의에 있기에 크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변영의 상징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며 아테네를 제국으로 발전시켰던 데는 동맹국의 희생이 있었다. 페르시아와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한 아테네는, 언젠가 있을 페르시아와 전쟁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다. 그리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와 제국주의 末路

고 ‘동맹세’, 요즘으로 말하면, ‘방위 부담금’을 요구하였다. 동맹국들은, ‘동맹’을 처음에는 선의로 받아들였으나, 이내 그것이 아테네가 제국으로 가려는 야심에 있음을 알고 반발하였다.

그라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제국을 획득한 것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맹국들 스스로 찾아와 자신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라고 강변하였다.

페리클레스의 탐욕에는 동맹의 지도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아테네의 강박감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동맹을 압박하여 제국의 길을 지향한 아테네와 페리클레스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오히려 스파르타가 결성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더 많은 호의를 보였다. 이 동맹은 아테네의 텔로스 동맹과 달리 병력 제공을 중심으로 한 상호방위 체제였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도시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양 진영 대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고, 패배한 아테네는 몰락하였다. 상처받은 승리를 얻은 스파르타 또한 곧 붕괴되었다. 페리클레스가 추구한 제국화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다. 한국전쟁 때 수만 명 미군이 전사하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5천 명 넘게 희생하였다. ‘혈맹’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현재도 2만 5000의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동북아시아 균형성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역내 안정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역내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까? 우리는 1조 5000억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말하자면 ‘동맹세’를 부담하고 있다. 순수한 직접경비이다.

최근, 우리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 구금하고, 그리고 우리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대부분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라고 욕박지르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서, 아테네의 초조함을 숨기려는 페리클레스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IMF를 경험하였다. 경험 이 없고, 당황하여 당시에는 국부를 쉽게 내놓았던 안타까움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린을 이겨낸 빛나는 ‘대한 국민’이다. 1930년대 중반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등에 내버려졌던 우리 동포들은 살아남아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봉오동의 영웅 흥범도 장군이 거기에 있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2000만 민족 가운데 무려 5000만 명이 위대한 항쟁에 나섰다. 대단한 민족이다.

건강한 동맹의 미래를 위해, 아니 미국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도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말고 형상에 당당하게 임하라.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

필수의료분야, 특별한 보상책 필요하다

개원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노력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등이 주된 원인이다.

광주시의사회가 최근 의사 3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지역의료 실태조사’도 이같은 내용이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원인으로 40.5%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꼽았고 이어 ‘낮은 의료 수가’(35.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의 개선책으로는 43.3%가 ‘법적인 보호제도 강화’를 들고요 ‘의료기관 재정보상 강화’는 31.8%,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처우개선’은 16.6%였다.

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료를 의뢰하는 이유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66.3%로 가장 많았다. ‘지역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진료과목이나 치료법’ 때문은 24.5%, ‘수도권의 서비스 질이 우월하다’는 응답은 8.0%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인력 확충’(36.0%), ‘의료기관 간 환자이력 및 회송체계 활성화’(20.4%), ‘지역 외 진료에 대한 제도적 규제’(15.6%), 등이 요구됐다. 문제는 예전부터 의료계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분야 기피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진료 수가 조정 등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대형병원에는 의료인력이 집중됐고 지방은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강제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의과대 정원을 대폭 늘려 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야 한다.

이들 문제를 푸는 선결과제는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 책임 법적 완화 등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거점병원에 수도권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과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진군 승부수 ‘반값여행’ 국가정책됐다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국가정책이 됐다. 정부의 지역관광 확산 전략에 반영돼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도입된다는 것이다.

사실 ‘반값여행’은 인구 3만2000여명의 작은 군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던 강진군은 지난해 1월 ‘누구나 반값여행’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강진에 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경비 절반을 식당·숙박·카페·전통시장 등 16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 단위는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내부 소비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웠던 강진군의 관광을 매개로 한 승부수였던 것이다.

무모한(?) 도전은 통했다. 지난해 관광객은 28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늘었고 같은 기간 방문 인구도 709만명으로 전년 635만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참여자 1만5291팀이 쓴 돈은 66억원이나 됐다. 2023년 1억원에 불과했던 특산물 온라인몰인 ‘초록민음강진’의 연 매출도 28억원으로까지 뛰어 올랐다.

한국은행이 관련 산업연관표 분석에서 지난해 반값여행에 22억원을 투입해 24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할 정도다.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 8월 현재 4만8463팀이 강진에서 쓴 돈만 해도 136억원이 넘게 됐다고 한다.

기존 정주 연구에 관광·통근·통학인구 등을 합친 생활인구도 크게 증가하는 등 인구소멸 대응효과 또한 컸다. 특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 반환액이 숙박·음식업과 농·수·축산물 판매 등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또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유하는 정책 브랜드화 됐다. 장성·완도·영암, 경남 하동·산청, 충남 홍성, 대전이 이를 시행했고, 충북 충주·전북 전주·경북 상주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강진군민과 공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한 ‘반값여행’이 지역경제는 타 지자체 경제까지 살리고 있는 것이다.

기고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1993년 발표된 노래 ‘신토불이’의 첫 구절은 단순한 트로트의 형식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농민의 절규를 담아낸 민중가요였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추진되면서 쌀값은 폭락했고, 수확을 앞둔 농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했고,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이 노래는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우리 땅에서 난 곡식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 ‘우리 땅과 몸은 둘이 아니다’란 철학에서 출발한 가사는 민요풍의 리듬에 실려 시위 현장에서 직접 불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한 유행가가 아닌, 농민의 삶을 대변하고 시대의 상처를 위로한 노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다시 우리 농업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다기요는 추석, 우리는 자연스레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나누는 추석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게 된다. 명절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그릇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을 앞두고 쌀, 고기, 과일 등 먹을거리를 나누며 풍요로운 명절을 함께했다. 오늘날에도 먹을거리를 선물로 받는 일은 여전히 따뜻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것은 배를 채우는 양식이자, 보내는 사람의 정과 농업인의 땀방울이 함께 담긴 선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격과 편의성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품질과 가치,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자랐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선호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선택을 넘어, 건강과 환경,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는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은 저렴한 가격과 대량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신선도 저하, 생산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농산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햇과일, 햅쌀, 한우, 전통 장류, 지역 특산물 등은 품질도 뛰어나고 정성도 가득하다. 무엇보다 생산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농촌의 일손을 줄이고, 기후 변화는 작물의 생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작황이 불안정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일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농업인을 응원하고 농촌을 지키는 실천이 된다. 지역 농업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면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생산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업법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우·굴비·인삼 세트 등은 품질과 정성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다. 들녘을 스친 바람과 땅바람의 시간이 담긴 우리의 식탁이 풍성할수록, 농업인의 삶도 풍성해진다. 우리 농산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사 회 교 육 부 370-7020 지 역 사 회 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